작품 '산불'로 제40회 광주연극제 대상을 받은 극단 시민의 무대 모습.

극단 시민이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출전을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제공=극단 시민

"50년 역사 위 다시서는 전국 무대, 최선 다하겠다"

광주연극제서 대상 수상 '극단 시민' 장원 대표
사실주의 '산불' 재해석 '대한민국연극제' 출전

"1976년 창단한 극단 시민이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큰 상을 받게 돼 의미가 남다릅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를 대표해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제40회 광주연극제'에서 '산불'로 대상을 수상한 극단 시민의 장원 대표는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극단 시민이 광주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2015년 '나이테' 이후 11년 만이다.

장 대표는 "사실 대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표직을 맡게 된지 1년째라 오랜 역사를 지닌 극단을 이끄는 입장에서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책임감을 갖고 잘 이끌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극단 시민이 선보인 '산불'은 극작가 차범석의 동명의 작품을 바탕으로 기존 리얼리즘 중심의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한국전쟁 당시 남성들은 전쟁에 나가 여성과 노인만 남은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여성 서사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념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선택과 생존, 그리고 연대의 의미를 되살린다. 무대는 비우고 세트대신 배우의 몸짓으로 공간을 채웠다.

극단 시민은 이에 대상뿐만 아니라 대상과 연출상(김민호), 우수연기상(박경단), 예술상(최성인), 신인연기상(문창주) 등 주요 부문을 휩쓸었다.

장 대표는 "리얼리즘 방식으로 재현하기보다 텍스트를 압축하고 이미지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다"며 "배우의 움직임 자체가 공간과 감정을 만들어내도록 구성해 기존 타 '산불' 무대와는 다르게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속에서 남성들은 이념과 사상을 외치다 결국 소멸해간다. 끝끝내 살아 남아 삶을 이어가는 존재는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면서 "여성 인물들의 시선과 감정에 집중하면서 작품을 압축해 무대를 꾸렸다"고 했다.

작품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간 준비됐다. 김민호 연출(동신대 교수)이 '산불'을 제안해 무대화됐다. 김 연출과는 동신대 방송연예학과(현 뮤지컬·실용음악학과) 재학 시절 교수와 제자로 만난 사이로, 장 대표가 조연출이던 시절부터 작업한 사이여서 합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장원 대표

현재 극단 시민은 30대 중심의 젊은 단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극단으로는 이례적으로 비교적 낮은 연령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는 "광주에서 가장 젊은 극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고전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해체하고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실험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극단 시민은 상반기에 대한민국연극제 진출 준비에 집중하고, 하반기에 정기공연 등을 통해 관객들과 만날 계획이다. 2인 창작극 '오차'와 안톤체호프 원작의 '세 자매'를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번 수상으로 극단의 저력을 다시 입증한 만큼, 대한민국연극제 준비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전 작품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극단 시민의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3년 시작돼 40년의 역사를 이어온 광주연극제는 대한민국연극제에 출전할 광주 대표 극단과 작품을 선정하는 공식 지역 예선대회다. 광주를 대표하는 프로 극단들이 참여해 작품성과 창작 역량을 겨루며 대한민국 무대를 향한 경쟁을 펼친다.

올해 제40회 광주연극제는 연극문화공동체 DIC가 '백조의 노래', 극단 까치놀의 '성(性)스러운 수다', 극단 시민의 '산불', 극단 터의 '스무살의 비망록'이 경합을 벌였고, 대상을 수상한 극단 시민이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를 대표해 출전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절집서 만난 민중의 얼굴을 한 부처…'사찰기행 보고서'

글쟁이 한송주·화가 이상호
'저절로' 선봬…오늘 출판회
전시 30일까지 오월미술관

전남과 전북 일대 서른 곳의 사찰과 불교 유적을 잇는 순례 기록서가 나왔다.

국가폭력의 상처를 온몸으로 통과한 화가와 풍경을 쓰되 풍경에 머물지 않고, 절집의 내력과 민초들의 삶과 불교의 사유를 한데 엮어낸 필자가 순례 기록서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순례기록서를 통해 풍광 좋은 절집을 둘러보는 기행이 아니라, 상처 입은 시대를 통과한 몸과 마음이 산사에서 무엇을 만나고 어떻게 변하는가를 묻고 있다. 주인공은 광주 언론판에 실력있는 글쟁이로 널리 알려진 한송주씨와 민중 지향을 쉼없이 추구해온 이상호 화가가 그들이다. 이들은 월간 '전라도닷컴'에 연재된 사찰기행 '저절로'를 최근 출간했다.

'산사, 서른 개의 화두'라는 부제를 단 이 사찰기행에는 광주 증심사에서 시작해 장흥 보림사, 화순 쌍봉사, 여수 향일암,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구례 화엄사, 부안 내소사, 나주 불회사, 남원 실상사, 강진 백련사, 익산 미륵사지, 순천 선암사, 장성 백양사, 진안 탑사, 화순 운주사, 영암 도갑사, 부안 개암사, 곡성 태안사, 강진 무위사, 완주 화암사, 영광 불갑사, 구례 사성암, 광주 원효사, 순창 강천사, 해남 대흥사, 순천 송광사, 광주 선덕사, 해남 미황사, 광양 옥룡사지까지 포함됐다.

박구용 교수(전남대 철학과)는 발문을 통해 "기다리는 미학이 아니라 떠나가는 미학"이라며 "(이 책의 사찰들을) 신체와 영혼이 서로에게 자유가 되는 경험이 켜켜이 쌓인 장소들"이라고 밝혔다. 한송주씨의 글은 독자를 불교 경전의 상징세계 안쪽으로 데려가면서도, 선재동자의 순례처럼 사람과 삶 속에서 선지식을 만나는 길을 보여준다. 이 세계에서는 관음이나 문수 같은 보살뿐 아니라 뱃사람, 거리의 여인, 어린아이까지도 선지식이 된다. 사찰은 박제된 유적이 아니라 지금도 감로법우가 내리는 장소로 다시 살아난다. 이 텍스트 위에서 이상호 화가의 그림은 글에 종속되지 않는다. 미술평론가 김종길이 말하듯, 두 사람의 작업은 "글과 그림이 서로를 품어 안으며 이룬 탁마"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이 화가의 그림은 전통 불화의 엄숙주의에서 한 걸음 물러나 민화와 풍속화의 친근한 감각을 끌어온다. 사천왕은 위압적인 신장이 아니라 다람쥐를 바라보는 온유한 존재로 나타나고, 절집의 동물과 사람들은 모두 산사의 이웃처럼 등장한다.

이 화가의 그림은 전통 불화의 엄숙주의에서 한 걸음 물러나 민화와 풍속화의 친근한 감각을 끌어온다. 사천왕은 위압적인 신장이 아니라 다람쥐를 바라보는 온유한 존재로 나타나고, 절집의 동물과 사람들은 모두 산사의 이웃처럼 등장한다. 이런 조형은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물고, 사찰을 고단한 삶을 보듬는 광장으로 다시 배치한다. 그래서 이 책 속의 불보살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다. 고창 선운사의 마애불과 순천 선암사의 마애불, 김제 금산사의 미륵불 같은 존재들은 역사 속 민중의 희망과 절망을 함께 품어온 상징으로 다시 읽힌다. 불보살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낮추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상호 작 '실상사 약사여래'

이 사찰기행은 절을 오늘의 언어로 새롭게 읽는 한 권의 현장 보고서이자, 국가폭력 이후의 삶과 예술이 어떻게 더 넓은 생명 감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증언이다. 절집은 멀리 떨어진 성역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장소라는 것. '저절로'는 그 사실을 서른 번의 순례와 90여점의 그림으로 증명한다.

한송주씨는 신문기자로 40여 년 근무하면서 주로 사찰과 농어촌을 취재했으며, 순천 송광사 사보 편집장으로 10여년 간 일했으며, '천년가람'을 비롯해 '그리운 사람은 남행을 꿈꾼다', '역사와 함께 노래와 함께', '송광사 16국사', '혜심 선문 염송 엿보기' 등 20여권의 책을 펴냈다. 현재 전라도닷컴 대기자로 일하고 있다.

이상호 화가는 1987년 친구 전정호와 함께 그린 걸개그림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역사의 길목에 서서', '연필로 그린 부처님 이야기', '눈 감고 눈 뜬 오월의 사람들', '이상호: 역사를 해부하다' 등 개인전을 망라, 수많은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1년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초대작가로 참여해 '일제를 빛낸 사람들'을 선보였으며, 5·18민중항쟁을 주제로 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출판기념회가 1일 오후 6시 광주 '오월미술관'에서 열리며, 책 속에 담긴 이상호 화가의 그림들을 만날 수 있는 '저절로' 전시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오월미술관에서 이어진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피우다'

매화처럼 피어날 삶…생명력 만개 염원

백현호展 북광주세무서 갤러리&409…'피우다' 연작 21점

전통 산수화의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전남 장성 출생 정산 백현호 화가가 초대개인전을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달 동안 갤러리&409에서 '매화, 피우다'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출품작은 80호 내외의 근작들인 '피우다' 연작 21점.

백 작가의 이번 전시는 북광주세무서 내 자리잡은 갤러리에서 붓을 세워 힘있게 긋는 중필법과 강렬한 보색 대비를 사용해 전통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등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시도해온 연장선상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봄꽃들을 중심으로 작업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40여년 넘게 전통 수묵 진경산수의 틀을 깨고, 현대적 감각의 채색화로 파격적인 변신을 꾀해오는 한편, 전통 산수화의 전형에 매진하며 탄탄한 기본기를 닦아온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며, 단순화된 이미지로 우주적 섭리를 표현해왔다. 근래에는 산을 단순화하거나 '꽃'을 주요 소재로 활용해 생명력을 강조하며, 옻칠을 활용한 작품 등 재료 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삶의 관록에 한층 더 깊이를 더한 미술적 혜안을 투영한 매화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타이틀인 '매화, 피우다'를 보면 작가의 사유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피우다는 사전적으로 얼어나 번지게 하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매화가 피우다는 것을 말하는데, 자연의 섭리가 그대로 녹아있다. 무심코 혹은 문득 바라본 시간 속 다시 매화가 피우는 봄을 통해 모든 세상만물의 이치가 평화와 화해의 시간들을 맞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투영돼 있다. 그저 색상으로 볼때 아름다움이 아니라 거칠은 내면을 포근하게 안으면서 갈등이나 분노가 아닌, 평화와 화해의 시간을 갈구하는 작가의 심리적 기저가 작품 속을 관통하고 있다.

백계민 북광주세무서장은 축사를 통해 "세한의 추운 겨울을 견디고 향기와 함께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는 자연 속의 생명력과 옛 선비들이 그러했듯 견고한 매화정신을 배우게 한다. 작가에게 매화는 삶의 또 다른 표현이며 화면 속에 피어난 매화처럼 삶 또한 그렇게 피어나길 바라는 염원이다. 사월이 오면 잎이 또 꽃처럼 그 자리를 채워나갈 것"이라며 "작품 속 매화가 금빛으로 피어 화면을 채우듯 작품과 조우 속에서 모두의 삶도 그렇게 빛나는 순간으로 눈부신 날들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현호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과와 대구대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 개인전 21회와 단체전 400여회에 걸쳐 출품했다. 오는 5월 전남대병원갤러리 초대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